

십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한
성교육 영상물

“RU Ready?” 지금 우리는”



사이버 성폭력, 성매매, 낯선 사람으로부터
혹은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원치 않는 성-
주인공 지민이는 어떻게 헤쳐 나가고 부딪히고 고민할까요?
동시에性に 대하여 기대하고 누리고 도전하는 우리,
무엇을 같이 얘기해볼까요?

(사)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상 담 : 02-338-5801~2

사 무 : 02-338-2890~2

“RU Ready?” 지금 우리는”



십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한
성교육 영상물



Contents

- 2 제작의도
- 4 "R. U. Ready? 지금 우리는" 캐릭터 소개
- 6 "R. U. Ready? 지금 우리는" 으로
무엇을 이야기할까?
- 8 Scene 1 어따대고 수작이야? 엉?
- 12 Scene 2 휴우~ 왜 말을 못했지?
- 16 Scene 3 아둥 CD 팔아요?
- 20 Scene 4 너, 나랑 키스해볼래?
- 26 10대+안내자를 위한 책 소개
- 28 10대를 위한 사이트 소개
- 30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런 곳입니다

제작 의도

1. 성적자기결정권 개념을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대의 성적자기결정권? 본 애니메이션에서는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을 통해 10대가 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성적 상황에서 주체적으로 각각의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자신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 10대 여성과 남성의 성문화와 의사소통 방식, 그리고 욕망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지 이야기 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10대의 고민거리를 있는 그대로 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0대들의 성을 교육자의 시선으로 재단한다면 있는 그대로의 그들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애니메이션은 10대의 성에 관련된 여러 고민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이를 보고 그 고민의 바탕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토론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밝아 나가도록 하



였습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관계 맺기의 어려움은 어디서 생기는 지, 서로의 고민에 대한 느낌을 공유하고 서로를 소외시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 10대 여성이 만날 수 있는 성문화에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주인공은 낯선 사람의 성적 공격에는 당당할 수 있으나 동시에 친밀한 관계에서는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낯선 사람의 성적 공격에 당당할 수 있는 10대 여성도 친밀한 관계에서는 주눅들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성문화가 어떻게 10대 여성에게 스며들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문화 속에서도 10대 여성의 주체적으로 자기방어(self defense)를 할 수 있는 힘을 부각시키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스스로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고 공격자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R U Ready? 지금 우리는”

등장하는 캐릭터 소개



지민

외양은 평범하지만 톱 부러지고 당찬 성격.
발랄하고 적극적이지만 현서를 사귀면서
소극적인 자신의 모습에 혼란을 겪음.



수희

털털하고 성격이 좋아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음.
지민의 베스트 프렌드.
개성이 강하고 언제나 활발하면서도
배려심이 많아 지민에게 많은 조언을 해줌.



현서

잘생기고 운동도 잘해서 남녀 모두에게 인기가 많음.
호기심이 많고 자존심이 센.
그렇지만 약간 우유부단해서 남들과 있을 때 확실하게
자기 의견을 밝히지는 못하는 성격.



동원

학급 내 야동 사이트나 포르노시디를
돌리는 마당발. 말도 잘하고 장난기가 많음.
행동거지에 겉멋과 품이 많고
남자 친구들과의 의리나 문화에
자부심이 대단.



아주

반에 있는 듯 없는 듯 잘 모르지만
가끔씩 촌철살인의 미학을 펴는 독설가.
도수 높은 안경 때문에 약간 정신이 없어 보이나
신비한 느낌도 줌.

“R U Ready? 지금 우리는” 으로 무엇을 이야기할까?



대 상 10대 여성과 남성
시 간 약 11분
제작연도 2005년

● 중학교 2학년인 지민, 남자친구 현서와의 50일 기념일을 맞아 매우 들떠있다. 그러나 방과 후 학교 컴퓨터실에서 채팅을 하다가 성매매를 요구하는 남자의 쪽지를 받고 매우 기분이 나빠진다. 지민은 신고하겠다면서 화를 내고 나와 버리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다. 설상가상으로 현서를 만나러 가는 길, 자신의 몸을 만지는 아저씨를 만나게 되고...

→ 성매매 제의, 사이버성폭력, 지하철 성추행.. 10대 여성들은 살면서 많은 성적 공격들을 겪게 되지요. 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혹은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경험담을 나누고 멋진 대처를 생각해볼까요?

8page로

● 현서를 만나고 곧 기분이 좋아진 지민, 현서와 좋은 시간을 보낸 지민은 현서와 선물을 주고받다가 현서가 자신에게 키스하려는 듯 다가오자 약간 움츠러들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려서 집으로 돌아온 지민은 고민에 빠져든다.

→ 지민이는 현서 앞에서 왜 머뭇거렸을까 고민합니다. 차한한테는 달랐는데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12page로

● 다음날 지민은 수희와의 즐거운 수다를 통해서 자신의 성적 환상과 남자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역시 무엇인가 풀리지 않는다. 한편 현서네 교실 뒤편에서는 야동시디 판매 소동이 일어나고 현서는 자신을 놀리는 동원에게 지민과 없었던 일을 거짓으로 말하게 된다. 이 장면을 목격한 지민은 화를 내고 뛰쳐나가고 당황한 현서는 지민을 쫓아나간다.

→ 여자들의 성문화와 남자들의 성문화는 왜 다른 것일까요? 원래부터 그들의 욕망이 달라서 그런 것일까요?

16page로

● 지민은 수희와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키스에 대해 말한다. 수희는 하고 싶을 때는 자위도 한다고 소개한다. 현서의 행동에 화가 났었지만 자기 느낌에 솔직해지고 싶어진 지민은 현서에게 키스를 해보자고 제안한다. 그렇지만 현서는 멈칫거리는데.

→ 남자 친구들 사이에서 자위행위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왜 여자 친구들의 자위는 쉬쉬하게 되는 걸까요? 지민이 먼저 키스하려고 할 때 왜 현서는 움츠러들었을까요? 왜 여자가 적극적으로 욕망을 표현하면 이상하게 여겨지는지 이야기 해볼까요?

20page로

어다 대고 수작이야? 엉?



같이해봅시다

S.T.O.P_상황극

- 1 주어진 상황을 연출한다. 작은 무대 마련, 연기자 모집 등
- 2 주인공 역할이 "이럴 때 나는 이렇게 했었다"를 해본다 ("이렇게 하고 싶다"를 해도 좋음)
- 3 관객 중에서 더 좋은 대처법이 있는 사람이 "STOP!!"을 외치고 나와 보여준다
- 4 이와 비슷한 직·간접 경험이 있는지 묻고 이야기 나눈다

STOP 상황극

STOP 상황극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성적 공격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할 수 있을지 함께 지혜를 모아보는 역할극입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라면 이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STOP!을 외치고 등장인물과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상황 1

지민 옆자리 아저씨는 계속 몸을 기대온다. 그렇지만 고개를 끄덕끄덕 졸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졸고 있는 거 같지 않다. 심지어 손이 허벅지 위로 올라오고 있다. 어떻게 할까?



- 등장인물 : 지민 역할 / 졸고 있는 척 하는 아저씨 역할
- 준비물 : 의자 두 개

상황 2

채팅으로 알게 되어 만나게 된 오빠 A. 약속장소에 나가보니 "응돈 줄 테니 나랑 자자" 아니, 이게 갑자기 왜 이러지? 채팅에서와는 딴판인 모습에 화가 난다. 어떻게 할까?



- 등장인물 : 지민 역할 / A오빠
- 준비물 : 의자 두 개

〈학습지 예시〉

토론해봅시다

Q 지민이는 핸섬가이에, 지하철아저씨의 행동에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A 인터넷이 익명의 공간이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불쾌감이 없을 까? 절대 그렇지 않다. 지하철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화가 나는 일이다. 내 몸은 바로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내 몸의 일부를 만지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침해이다. 또한 사이버 성폭력은 매우 공포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내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신변의 위험을 느낄 수도 있다.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들은 "밤길 조심해라"든가 "너네집 찾아 간다"는 등의 공포를 유발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많기 때문. 이와 같은 언어 성희롱, 협박, 스토킹 등은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분노와 공포심과 다르지 않다.



Q 지하철에서 시민이의 대처는 어땠나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A 아저씨든 할아버지든, 아무리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이라 할지라도 나를 침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특히 성폭력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흔히 성추행 등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많이 하는 첫마디가 "왜 이러세요?"이다. 이 말을 잘 생각해보자, 왜 그러냐구? 이 말은 이유를 궁금해하는 말이다. 혹시 내가 당신에게 불편을 끼쳐서? 내가 옷차림이 야해서 그런 건 아닌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이것은 원인을 흔히 자기 탓으로 먼저 돌리는 생각습관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왜 내 엉덩이를 만지는지, 다리를 만지는지 궁금한가? 이유가 궁금할 필요는 결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즉각 멈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말로 해볼까?

- 내 엉덩이에 손 댄 놈 누구야?
- 다리 좀 오므리시죠, 불편해하는 거 안보이시나?
- 어른이 모범을 보여야죠.
-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 또 무엇이 있을까요? >> _____

신고는 어떻게?

가장 손쉬운 신고는 112

지하철 수사대 서울(대표) : 02-2281-0898

부산(대표) : 051-809-8998

혹은 각 역무실에 직접 신고

Q (한성가이) "나랑 한번 할래?" 이런 녀석은 어떻게 할까?

A 시민이처럼 많은 10대 여성들이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메시지들, '돈을 줄 테니 우리 만나자'(2004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인터넷 채팅으로 이런 제안을 받은 경험은 평균 13.7번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10대 여성들은 이를 무시하고 대화창을 열른 단아버리지만, 불쾌하고 찜찜한 느낌은 오래도록 가시질 않는다. 한성가이처럼 이렇게 불쾌한 메시지를 보내오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남성중심적 상업주의와 자신보다 나이 어린 여성을 성적 대상화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 드는 일부 남성들의 성의식이 서로 맞물리면서 10대 여성의 성을 쉽게 살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된다. 더구나 이 제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10대들에게 유혹적임을 알고 있는 남성들이여~ 그 대가가 어떠한지도 알고 있는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때로는 신상공개 제도에 의해 이름,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 신상이 전국에 1개월간 공개될 수도 있다.

만약 채팅을 하다가 이런 쪽지를 받는다면 바로 사이버경찰청이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www.internet119.or.kr로 신고하고, 주위에 성매매 피해경험으로 힘겨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청소년긴급전화 1388로 전화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휴우~ 왜 말을 못했지?



같이해봅시다

맞_아_맞_아_-B_E_S_T_3

- ① 질문지를 모두에게 나누어준다
- ② 한 사람이 먼저 답을 한 후 다음 사람을 지목한다. (예) 여-남-여-남의 순서
- ③ 서로 답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보기

맞아맞아! BEST 3

지민과 현서처럼, 누군가 사귀어본 경험이 있나요?
지민의 머뭇거림처럼, 지민이의 고민처럼 머뭇거리거나 고민해본 적이 있나요?
혹은 예상되는 갈등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1. 그 애와 내가 원하는 게 달라 충돌한 경우는?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편하게 말하기 어려운 경우는?

- ①
- ②
- ③

2. 나는 왜 그랬을까?

- ①
- ②
- ③

3.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 ①
- ②
- ③

Q 현서가 키스하려고 다가가는 순간!
지민이의 표정이 어딘지 불편~
왜 치한한테 한 것과 현서한테 한 건 왜 달랐지?

A 다음 날, 학교 교실에서의 수희와 지민의 대화를 떠올려 보자. 수희는 하고 싶지 않을 때 현서가 그러자고 한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지민이는 '분위기상 말을 못할 때도 있다'고 한다. 이 '분위기상'이라는 건 정말 서로가 원하는 '분위기'는 아닐 것이다. 이 '분위기'가 남자친구 혼자만 잡는다고 잡아지는 것인가?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배려하는 마음이 크기 마련이다. 따라서 일방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분위기라면, 싫은 감정을 내보이지 못하는 쪽은 자신의 감정을 참고, 상대방에게 맞춰주게 된다. 서로를 배려하고 아낀다고 말하는 사이에서는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될 것이다. 어떤 관계 건, 소통되지 않는 관계, 일방적인 관계는 상처를 남긴다.



Q 좋아하는 사이에서도 성폭력이 일어난다구?
지민이와 현서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었던 걸까?

A 현서가 지민이에게 키스를 하려고 다가갈 때, 분명히 지민이의 기분은 살피지 않았을 뿐더러 자신이 하고 싶은 성적 표현에 대해 의견을 전혀 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현서가 친구들과 모여서 서로의 여자친구들에 대한 둘만의 성적 표현들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 역시 성폭력이 될 수 있다.

앞의 이야기에서 보아서 알겠지만, 성폭력은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원하지 않는 모든 성적인 행동들이 성폭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는 사이, 좋아하는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오히려 사귀는 관계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 상대방을 좋아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성폭력 보다 오히려 더욱 싫은 감정을 내색하기가 어렵기 때문.



Q 나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A 여자친구들에게,

사귀는 상대가 포옹이나 키스를 하고 싶다고 할 때, 그것이 내키지 않고 불편하다면 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혹은 자신이 성적인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하고 싶다면 그것 또한 분명하게 밝히고 상대방에게 의견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자친구들에게,

사귀는 상대에게 성적 행동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물어보고 상대방의 의견을 100% 수용하도록 하라. 만약 성적 행동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싫다거나 우물쭈물하거나 또는 침묵한다면 상대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는 신호다. 좋아하는 친구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잊지 말자. 관계에 대한 나의 기대나 태도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될 지 생각해보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잊지 말자.



야동CD 팔아요?



같이해봅시다

B_O_Y_S_릴_레이_토_크_쇼

- 1 질문지를 남성에게만 나누어주고 체크하도록 한다
- 2 한 문제에 한 두 사람씩 돌아가면서 체크한 답을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설명이 끝난 후 다른 남성이 반론하면 둘, 혹은 전체 사이에 잠깐 토론할 수 있다
- 3 여성들은 남성의 발표를 들으며 특정 사람, 혹은 전체 남성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쪽지에 적는다
- 4 발표가 끝난 후 교사들은 여성들의 쪽지를 걷어 하나씩 읽어준다

Boys 릴레이 토크쇼

아래 질문에 자신이 그렇다면 O / 아니라면 X를 표시해 주세요

- ☐ 키스나 성적접촉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의견을 직접 물어보는 것은 창피하고, 무드를 깨는 것이다
- ☐ 여자들은 은근히 터프하고 거친 남자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 ☐ 사귀고 싶은 여자가 싫다고 해도 꾸준히 내 의지를 전달함으로써 승락을 얻어내는 것도 낭만적이다
- ☐ 울고 싶은 걸 숨기고 태연한 척하려고 애쓴 적이 있다
- ☐ 경우에 따라서 주먹을 쓸 수 있어야 한다
- ☐ 사나이라면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물건을 발로 찬 적이 있다
- ☐ 요리나 청소를 잘 하는 남자는 매력이 없다

같이해봅시다

다시 쓰는 시나리오

- 1 대본을 한 장씩 갖는다
- 2 현서의 대사를 중심으로 시나리오 다시 써보기
- 3 현서의 바뀐 대사에 따라 동원의 반응도 달라질 것인지 써보기

다시 쓰는 시나리오

친구들에게 CD값을 흥정하던 동원, 갑자기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무엇인가 생각난 듯이 현서에게 새끼손가락을 보이며

동원 : 아, 근데 너 어뜨케 됐냐? 키스 했어? 어디까지 갔냐??

현서 : 아, 몰라. 알아서 뭐하게

동원 :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비웃는 듯한, 한심하다는 표정

동원 : 이 자식~~ 아직 키스도 못 했구만? 그치? 맞지?? 기집애 같아 가지구, 남자다운 맛이 있어야지~, 확 덮쳐버려 (억박지르듯)

현서 : "무슨 상관이야!" (화내면서)

동원 : "어? 화 내는거 보니까 진짜야 보네? 헤헤헤헤 아이구 이 녀석 어떡하나 그래~"

현서 : (속으로 우물쭈물한 목소리로) 지민이가 이런 거 싫어하지 않을까?...

잠시 주춤하다가, 오기 발동, 당당한 표정으로 의기양양하게 큰 소리로 떠든다.

현서 : "키스하는 걸로 남자답다고 치면, 난 슈퍼맨이야! 난 개 가슴도 만져봤어!!!!!"

놀라워하며 즐거워하는 동원일동 갑자기 동원이 친구가 동원의 가슴을 만지는 시늉을 하면서 논다.

동원과 일동 : "어얼~~~~" (웃음소리-약간 조롱하는 듯)

이 때, 날아들어 오는 지민의 실내화 현서 머리를 침 현서, 고개를 돌리며 놀라고 짜증나는 투로

현서 : 아아- 뭐야 ?

Q (동원) "어디까지 갔냐?" 이 질문은 왜 싫을까?

A '성(性)'의 한자를 한번 살펴보자. 마음(心)과 생(生)이 어우러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성적 접촉은 나의 삶과 상대방의 삶, 나의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엮는 종합적인 소통이다. '사귀다'고 할 때의 관계는 성적인 관계를 포함한, 그보다 훨씬 더 큰 소통과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 '어디까지 갔어?'라는 질문은 왜 싫을까? 그 속에는 관계와 마음은 없고 상대방의 의사도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 질문은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듣는 사람과 사귀는 사람까지 '마음'은 모두 없애고 성적 진도만이 사귀는 목적의 전부인 것처럼 만든다.

Q (현서) "어! 나는 개가슴도 만져봤다구!"

이런 부풀리기는 왜 싫지?

A '어디까지 갔냐?'와 같은 질문을 받을 때 실제보다 부풀리는 대답도 한 세 트. 왜? 우리 사회는 '많이 만질수록 더 남성적'이라고 얘기해왔다. 그러나 상대방을 얼마나 배려했는지, 서로 얼마나 소통하고 원했는지가 아니라 어디까지 만졌는지, 얼마나 공격적이고 일방적이었는지에 따라 남성적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문화는 남성을 '타인의 마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자기 몸의 욕구만을 보는 존재'로 만든다. 그런데 정말 이런 남성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에 따라 '만져'는, 인격이 없는, 수동적인 상대를 정말 원한단 말인가? 곰곰히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봐요 to BOYS

남성다움에 따지를 걸자

- ☐ 나의 몸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 ☐ 나의 생각이 옳지 않을 수도 있음을 언제나 열어놓고 잘못했을 땐 인정하기
- ☐ 내가 하고 싶은 취미 생활은 그것이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마음껏 즐기
- ☐ 걱정거리가 있을 때 조언을 구하기
- ☐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하고 묻기

솔직하고 적절하게 감정을 표현하자

- ☐ 울고 싶을 땐 주위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울기
- ☐ 화가 났을 땐 왜 화가 났는지 적절한 표현으로 설명하기
- ☐ 아프면 아프다고 표현하기
- ☐ 걱정되고 불안할 땐 일부러 대범한 척 하지 말고 불안하고 걱정된다고 하기

남자 친구들과

- ☐ 친하다는 표시로 욕을 섞어 말하거나 때리지 않기
- ☐ 친구에게 적절한 스킨십을 섞어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해보기
- ☐ 친구에게 스포츠나 게임, 아동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수다 떨기
- ☐ 친구가 힘들고 괴로워할 때 적절한 말과 이벤트로 위로해주기

여자 친구들과

- ☐ 외모를 가지고 친구의 기준을 만들지 않기
- ☐ 남자와 여자 둘이서 자주 어울리는 것을 보고 연애했다고 놀리지 않기
- ☐ 감정적인 위로를 여자친구에게서만 구하지 않기
- ☐ 여자친구를 사귄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눠서 판단하지 않기

사귀는 사람에게

- ☐ 사귀다고 해서 상대방의 몸을 함부로 다루지 않기
- ☐ 성적 관계에 있어서 항상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고 배려하기
- ☐ 상대의 고민을 들을 때 해결사를 자처하기보다 상대의 감정에 먼저 공감하기
- ☐ 헤어지고 싶다고 말한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확인을 구하거나 자주 연락해서 괴롭히지 않기
- ☐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시키고자 성적 접촉을 시도하지 않기

Scene 4

너, 나랑 키스해볼래?



같이해봅시다

G_I_R_L_S_끼리상담실

- ① 여성들(만)이 꼭지 한 장, 혹은 원하는 만큼 가진다
- ② 무기명으로 적기
 - ① 평소 궁금했던 성에 관한 것
 - ② 내가 해보고 싶은 성적인 행동, 시도
 - ③ 나만의 자위법
 - ④ 나만의 성적인 환상
 - ⑤ 성적으로 흥분했던 순간, 경험, 대상
 - ⑥ 성적 주제인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 ⑦ 성적 주제인 내가 부모, 교사, 어른들,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등
중에서 제한 없이 택해서 / 분량 상관없이 충분한 시간 동안 쓰기
- ③ 두 번 접은 쪽지를 작은 박스에 담는다
- ④ 여성들은 한 사람씩 박스에서 무작위로 쪽지를 뽑아 펼쳐 소리내 읽는다
- ⑤ 읽고 나서 읽고 나서 소감, 혹은 해 주고 싶은 말 등을 덧붙인다

GIRLS_끼리상담실



토론해봅시다

(현서) "어.. 나.. 나..!"

여자가 먼저 키스하자고 말하면 안 되나?

A 왜 현서는 지민이가 키스하자는 말을 하자 우물쭈물 당황했을까? 키스하고 싶다고 했으면서, 아마도 지민이가 먼저 그러리라곤 생각 못했던 것이 아닐까. 약하고 수동적이어야 할 여자가 먼저 키스를 하자고 하니 놀랐던 것은 아닐까. 여자는 이래야 하고 남자는 저래야 한다는 식의 생각들은 우리를 정해진 틀 속으로 밀어 넣는다. 성적 욕구를 표현하는 것에서도 마찬가지. 여자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표현하기 힘들지만, 남자들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상이며 친구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기도 한다. 반면 여자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 감정이 흐르는 대로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여자라고 해서 왜 먼저 키스하자고 말하면 안 되는가?



Q (수희) "난 가끔 DDR도 한다구~" 근데 DDR이 뭐야?

A "남자아이들은 자신의 성기를 쉽게 만지고 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잘 알 수 있는 반면, 여자아이들은 자신의 몸 구석구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른다. 또한 대부분의 남자 아이들은 여자 아이들에 비해 자위를 하는 것에 대해 심리적 압박감이 덜한 편이다.

하지만 여자아이들의 성기는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어떤 여자아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 우연히 자기 성기를 만졌을 때 기분이 좋아졌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그 기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그 기분을 맛보기 위해서 만약 여자인 당신이 자위행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나 불결한 것이 결코 아니라 당신의 몸의 느낌과 삶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자위를 자칭하는 D.D.R.(딸딸이의 알파벳 이니셜, 남자들이 흔히 쓰는 자위를 일컫는 용어)과는 다른 아름답고 귀여운 자신만의 명칭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영두 같은 내 입술 속, 비룡소, 2003)



Q "10대비 성적자기결정권을 위한"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무슨 말이지?

A 나의 no가 yes로 받아들여진다면 어떨까? 어떠한 압력도 없고 부담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스스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상대방이 오해한다면? 성적자기결정권은 자기 스스로가 선택한 성적결정에 대하여 존중받고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은 매우 발휘되기 어려운 권리이다. 성적 권리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음은 물론, 말하여진다 하여도 남성중심의 왜곡된 모습의 '성'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스스로가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스스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성적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를 위해 남성은 상대의 의사를 내가 미루어 해석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평소에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물리적인 압력 뿐 아니라 자신이 어떤 정신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자세가 필수.



이렇게 해봐요 from GIRLS

일상에서

- ☐ 나도 혼자 하는 여행을 두려움 없이 해보고 싶어
- ☐ 옷에 내 몸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싶어
- ☐ 성추행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지하철을 타고 싶어
- ☐ 외모에 대한 평가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 ☐ 브래지어를 하지 않고 가슴을 활짝 펴고 싶어

학교 혹은 커뮤니티에서

- ☐ 여자들을 위한 상담실에서 친밀한 상담을 받고 싶어
- ☐ 월경과 월경통을 부끄러워하고 싶지 않아
- ☐ 남자 선생님과 남자 아이들이 주고받는 음담패설을 듣고 싶지 않아
- ☐ 여자서 더 깨끗하고 위생적이어야 한다는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남자 친구들과

- ☐ "어디서 여자가~" 라는 말을 누구로부터도 듣고 싶지 않아
- ☐ 뭐에도 함부로 끼어들거나, 마음대로 소외시키는 거 싫어
- ☐ 우리 여자애들을 지켜준다고? 보호자 행세는 필요하지 않아
- ☐ 다 잘하는 척, 다 아는 척 하지 않는 게 더 보기 좋아
- ☐ 음담패설, 포르노 얘기 우리가 모를 줄 알고? 썩덕거리지 좀 말아줄래?

여자 친구들과

- ☐ 학교 운동장에서 여자 친구들과 축구하고 싶어
- ☐ 경쟁보다는 친밀함을 나누고 싶어
- ☐ 여자로서 힘들고 어려웠던 경험을 나누고 지지받고 싶어
- ☐ 성적 호기심이나 고민을 같이 나누고 즐거워하고 싶어
- ☐ 서로의 가능성을 믿고 격려받고 격려해주고 싶어

사귀는 사람과

- ☐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하려는 거 싫어
- ☐ 내 기분과 감정을 존중받고 싶어
- ☐ 서로의 느낌을 솔직하게 나누고 싶어
- ☐ 네 앞에서 주눅들거나, 네 기분만을 맞춰주고 싶지 않아

MEMO



우리들의 오피리아 | 루비박스

다양한 인종과 종교, 사회·경제적 배경의 전 세계에 걸친 소녀들의 글모음. 저자를 비롯한 12세부터 18세살까지의 '오피리아'들은 몸매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해 남자 친구, 학교, 부모, 정치, 섹스, 마약에 이르기까지 공적이면서도 사적인 문제들에 대해 날카로우면서도 진심 어린 견해를 제시한다.

운하의 소녀 | 비룡소

성폭력으로 인해 아픈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사라와 그 고통을 함께하고 치유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담임선생. 절제된 문장과 내용의 흐름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해주는 사라 담임 선생의 일기들. 아픈 두 영혼의 교류를 통해 문제의 해답은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희망의 틈을 보여준다.

소녀들의 지혜 | 또문소녀

여자 어른들이 소녀에게 꼭 해 주고 싶은 이야기. 소녀 적에 들었더라면 하는 통찰력 넘치는 충고들. 평범한 십대 소녀의 말부터, 광부, 스노보드 선수, 샌드라 블록, 니콜 키드먼 등 스타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들이 전해 주는 지혜는 엄숙, 교훈하고는 거리가 멀다. 인터넷이나 노래 가사, 영화 대사 등에서 인용한 말들이 생생+솔직!

당당하게 여자! | 제이앤알 (JnR)

감직하고 유익하며 재미있는 성 지침서. 모든 걸(Girl)들을 위한 책. 여성의 신체와 섹슈얼리티, 감정과 생활 전반에 걸쳐 여성 자신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흥미진진하게 들려준다. 수많은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정보들은 자신의 몸과 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들. 아하거나 거북한 느낌은 들지 않고 솔직하면서도 건강한 시각이 돋보인다. 원색을 사용한 디자인과 만화적 아이콘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청소녀를 위한 으랏차차~ 호신가이드 |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2004년 12월에 발간한 청소녀 대상 호신가이드북. 이 책에서는 지하철, 밤길 등 낯선 상황에서의 성적 공격부터 학교, 가족, 연애편계 등 친밀한 상황에서의 성적 공격까지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상황을 재연하면서 다양한 반격의 가능성과 방법들을 제안한다. 10대 여성들의 감정과 느낌을 섬세하게 포착하여 캐릭터를 통해 전달하는 삽화가 인상적.

앵두같은 네 입술 | 비룡소

사춘기가 시작되면 겪게 되는 몸과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임신, 피임법, 자위 행위, 이성 친구 문제, 또래 친구 문제, 동성애, 에이즈 등 청소년들이 궁금해 하는 성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있다! 청소년 당사자들과 자자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구성됨. 특히 100여 컷의 자료 사진들과 삽화 및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을 위해 직접 쓴 텍스트들이 이 책의 특징.

섹스북 | 박영롱출판사

사회학 박사가 쓴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성개몽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성 문제를 부각시키며 어느 성관련서보다 유익하고 사회현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창조해냈다. 독일 현지에서는 청소년과 청소년 교육에 관심 있는 어른들에게도 사랑받는 섹스가이드. 이 책에는 특이하게도 차례가 없다.

채연이의 일기 1,2,3 | 북이츠

주인공 채연이와 용빈이가 성장해가면서 주변의 친구들과 자기 자신을 통하여 겪는 성장기를 만화로 그린 책. 갈등에 빠졌다가 지혜롭게 화해하기도하고 서로를 소중하게 아끼는 방법을 배워갈 수 있다. 내일어셈블리 부설 탁틴 성 교육센터 지음.

R.U. Ready? 지금 우리는

기획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제작 나눌미디어
발행 (사)한국성폭력상담소(<http://www.sisters.or.kr>)
발행일 2005년 2월 28일
자료집 기획·집필 변혜정
강유가람
다혜정
노미선
김백애라

디자인 인쇄 일탈(02-2275-8447)

가격 2만원(자료집 포함)
구입문의 02-338-2890

이 비디오의 저작권은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에 있습니다.